

미국이 우려한 두 개의 전쟁 현실화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가장 경계하던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두 개의 주요 전쟁이 동시에 터지는 것을 우려해 왔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과 미국의 사할적 이익이 걸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일제히 전쟁이 발발하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국력이 육일승전할 때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 승리하는 군사 계획을 유지해 오다가 2012년 이를 수정했다. 세계 정세가 변화하고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미군 슬림화' 계획과 함께 이를 폐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두 개의 전쟁(戰場)이 생기는 것을 막아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가 로켓포 5000발을 쏘며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5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

면서 미국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일주일이면 승리할 줄 알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가 망신당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호기(好機)로 생각한다. 전 세계의 관심이 중동에 쏠려 있는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몰아붙이려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 정세 기류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은 후 더욱 불안해지는 추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다극화된 세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균형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긴장과 분열이고

러, 우크라이나 침공 이어 중동 전쟁 美가 한반도서 눈 돌릴 때 北 도발 '利敵 9·19' 합의 전면 폐기하고 日처럼 '선제타격', 평화 지켜야

조되고 더 나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정학적 질서가 바뀌는 '결정적 순간'으로 분석한 보고서도 나왔다.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고 보고 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일본이다. 지난해 일본은 적국의 공격이 확인되면 적의 미사일 발사대 등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을 도입했다. '3대 안보문서'를 모두 개정,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반격 능력을 명시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러시아의 남하(南下)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미 연방 의회도 한반도 관련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미 상원 외교위의 한반도 청문회에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의원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핵 보유국(북한) 옆에 있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내가 한국에 산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증인으로 나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커지는 북한의 위협을 위한 예비 대화와 유사시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듯 최근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두 개의 전쟁 현실화를 계기로 우리가 당장 결행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입맛에 맞게 만든 9·19 군사합의의 폐기다. 무엇보다 9·19 합의는 비핵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북한의 도발 정보를 제대로 탐지 못 하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였다. 전쟁의 승패는 정보전에서 판가름하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더욱이 북한은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등을 통해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다. 김정은을 미소 짓게 한 합의 문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국과 연대해 확고한 선제 타격 태세를 갖추는 때가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성 [159]

신안 하의도 칠게 반찬

물이 들기 시작하는 신안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느라 바쁜 마도요를 만났다. 민물마도요와 달리 종중거리지 않고 성큼성큼 걷다가 갯지렁이나 게를 서서 꿀에 부리는 물론이고 머리까지 박고서 먹을 것을 잡아낸다. 알래스카 등 북극 지역에서 하절기 번식을 마치고 뉴질랜드나 호주 등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는 무리들이다. 작은 갯지렁이를 몇 마리 잡던 마도요 한 마리가 서서 꿀에서 칠게를 잡아내 집게발을 부리로 물고 마구 흔들더니 갯벌에 패대기친다. 그렇게 네댓 번을 반복한 후, 집게발을 떼어 내고 아주 행복한 눈빛으로 한입에 삼킨다. 도요새들에게 우리 갯벌에서의 가을 만찬은 아직도 남아 있는 수천km의 가을 여행을 위한 에너지 충전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마도요가 좋아하는 먹이는 칠게다. 서해 갯벌에서 마도요를 즐겨 볼 수 있는 이유다. 칠게는 조간대 팔갯벌에서 서식하며 갯벌 위의 규조류나 사체 등을 먹는다. 눈자루가 길고 눈이 발달해, 사람·새·우족류 등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서식 굴로 숨는다.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칠게 반찬을 만났다. 하의도는 갯벌이 발달한 섬이다. 옛날에는 하의도, 상해도, 하해도와 하해도 사이에 제방을 쌓아 염전으로 바꿨다. 이곳 갯벌은 칠게가 살기 좋은 팔갯벌이라 낚지도 많이 서식한다. 신안에서도 만바다에 위치해 주변에 염전이 없고, 조류 소통도 원활하다. 게다가 섬과 섬 사이에 굴곡도가 높아 갯벌이 발달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다. 이



곳 주민들은 가을걷이가 끝날 무렵, 동면을 위해 살을 찌운 칠게를 잡아 반찬을 만들었다. 이곳 어민들은 칠게를 그물로 잡지 않는다. 그렇다고 플라스틱 통과 같은 불법 함정 어구를 이용하지도 않는다. 오직 마도요가 부리만을 이용해 칠게를 잡는 것처럼 맨손을 이용한다.

전라도의 섬사람들은 이런 칠게를 이용해 칠게장, 칠게무침, 칠게젓, 칠게튀김 등 칠게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이 칠게장이지만, 추석이나 잔치 등 특별한 날은 칠게 튀김을 만들었다. 또 칠게를 갈아서 양념을 더해 칠게젓으로 먹기도 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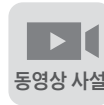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거 관리에 핵심적인 선거인 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다.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로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가 USB나 무선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점검팀은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년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는 최근까지도 거부했다.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까지 잇달아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선거 해킹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북한 집단을 상대하고 있다. 선거 해킹 가능성은 조금만 있어도 해당 기관이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1만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금을 1조원 더 많이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문 정부 5년간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그만큼 더 커졌고 이것이 부담금 과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을 산출할 때 쓰인 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44%인데,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134%나 올랐다. 이 KB통계대로 하면 차액이 적어 부담금은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조작된 부동산원 통계가 적용되니 부담금을 가구당 3억4700만원이나 내야 한다. 전국에서 24개 아파트 단지, 1만4000여 가구가 이런 문제로 1조원의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할 상황이다. 문 정부가 과거 아파트 표면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면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춘 결과, 국민이 엉뚱한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낮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부터 재시행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이 물어야 할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고,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 정부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집값 통계 조작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악화시킨 데 이어 정권이 바뀔 뒤에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가짜 통계에 기인한 엉터리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이 나라를 망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입 개편으로 낡은 문·이과 구분이라도 없애길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 시험을 치른다. 진학하려는 학과와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다. 또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 대입 제도를 손본 것이다.

현행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가 심해 유풀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많은 학생이 적성과 관계없이 점수 받기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는 부작용도 심각했다. 내신 5등급으로 하면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지금의 4%에서 10%로 늘어나 교실에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입 제도를 고치면 항상 부작용이 뒤따랐다.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번 개편안도 내신 변별력을 떨어뜨려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 있고 자사고·특목고 쏠림도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시각에 유익해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고교 교육과정에선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지만 수능 선택과목으로 사실상 문·이과를 구분했다. 한국사 문·이과 구분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것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선택과목인 '심화 수학'을 남겨두는 방안은 계속 검토한다고 한다. 그 경우 문·이과 통합은 다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부분은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하면 된다. 교육에서 문·이과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개혁을 노동·연공 개편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대입 개편 발표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교육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번 대입 개편이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섣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 학부모와 학생들이 믿고 따르는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궤변 판결이나, 법치 정상화나~ 강서구는 자유 투쟁 2차전이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1차전(직년 대선)은 아슬아슬 이겼다 | 3차전(내년 총선) 4차전(27년 대선)까지 모두 이겨야 | 이재명·권순일·유창훈 공통점은 궤변·역지

생사를 건 상징 내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 [윤석열이 상징하는 바와 이재명이 상징하는 바의 생사를 건 내전이다.]

이 내전은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의 첫 대전(對戰)을 치렀다. 두 번째 대전은 10월 11일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세 번째 대전은 2024년의 4.1 총선이다. 네 번째 대전은 2027년의 21대 대통령 선거다.

이 네 번의 대전은 다 [윤석열이 대변하는 세계관이나, 이재명이 내세운 세계관]이나의 혈투다. 윤석열이 대변하는 세계관은 정통 [자유주의] 세계관이다.

이재명이 사는 법, 역지와 궤변

[이재명이 내세운 세계관은] 왜가? 이재명 개인에게만 세계관 씩이나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그를 써먹는 쪽의 [사는 법]은 분명히 있다. [역지와 궤변]이 그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궤변학파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장난을 했다. "화살을 쏘도 절대로 과녁까지 갈 수 없다. 과녁에 닿으려면, 중간까지 가야 한다. 중간까지 가려면, 중간의 중간까지 가야

한다. 중간의 중간까지 가려면, 또 그 중간까지 가야 한다." 이에서 화살은 영영 과녁에 닿을 수 없다는 소리다. 이게 말 같은 말인가?

이재명을 띄우는 쪽의 '뺨'과 화법(詬法)과 수사(修辭)는 늘 그런 식의 ▲ 샅된 궤변 ▲ 웃기는 장난 ▲ 순역지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권순일 전 대법원 판사의 판결문부터가, 대표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말투도 꼭 그런 따위였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다 논리를 갖다 맞추는, 궤변의 극치랄까.

권순일의 역지-궤변

이재명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뒤집혔다. 구사일생한 셈이다.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난 이면엔, 대장동 사건 피의자 김민배와 대법원 판사 권순일 사이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 여부는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봐도 권순일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참으로 희한하기 짝이 없는 [작똥]이란 점이 다. 권순일은 이렇게 썼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이재명 지사의 TV 토론 발언은 유·무죄를 다룰 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TV 토론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뜻 아닌데? 이게 말 따위는 말인가?

유창훈 판결문은 권순일 어법 봉어방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의 변(辯) 역시, [권순일 궤변의 봉어방]이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격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돌아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똑같은 혐의라도 정당 대표는 불구속하고, 일반 서민은 구속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판사가 할 소린가?

권순일과 유창훈의 ▲ 논리인지 ▲ 작문인지 ▲ 궤맞추기인지는 [이재명 진영의 정체성]이 편지를, 한 마디로 알게 한다.

자유주의가 4연승 해야 한다

이런 그들을 누가 진보, 좌파라 부르는가? 그들에게 오직 '세상을 뒤엎겠다.'란 목적만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수단이라도 다 쓴다.

2022년의 3.9 대통령 선거, 2023년의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의 4.10 국회의원 선거, 2027년의 21대 대통령 선거는 바로,

그런 무소불위의 [궤변학파]가 춤추는 연속 무대극이란 이야기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자유진영에 부는 변화-세대교체의 바람- 싸움줄 이하는 시민들의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 이규용 먹고 김태우도 삼키려나? 누가 그를 막을진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0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